베니스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3시에 국내외 200여명의 인사가 방문한 가운데 한국관 개막식 행사가 열렸으며, 건축 및 미술계의 국제 유명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전세계 유수 비엔날레 간의 사업 연계,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세계비엔날레협회의 이용우 회장, 2006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이자 이번 2016년 비엔날레의 특별전을 기획한 런던정경대의 리키 버뎃교수, 이번 한국관 전시에 글을 기고한 조지아공대의 존 페포니스, 세계적 건축디자인컨설팅회사 프론트의 마크 시몬스 대표, 영국 옵저버지의 건축평론가 로안 무어, 아시아 건축평론가 호주 아델레이드 줄리언 워럴 교수, 프린스턴 건축대학 학장을 역임한 건축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건축학과 첫 여성 학과장이자 건축가 윤미진 교수, 기타 각국 예술감독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였다.